

코로나 시대의 독서 교육

'집콕 독서'와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하고운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

1. 들어가며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잠시 멈춤의 시간 속에 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밀집된 교실에서 하루 종일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두 달이 넘도록 학교에 발을 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며 학사 일정을 새로 짜고 있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결정, 그 후로 한 달 넘게 전국의 교사들이 불철주야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다.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느새 한 달째 온라인 수업은 곳곳의 암초들을 피해 나가며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 교육의 경우는 어떨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의 일부를 떼와서 읽는 '쪼글' 읽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천천히 깊이 읽는 즐거움'을 직접 느끼게 하려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무척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량을 줄인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한 권 읽기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교사들에게 학습 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사리 진행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독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서울

시교육청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집콕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집에 콕 박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본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집콕 독서라는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추천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그중 원하는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읽은 후 독후 활동을 하도록 온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글은 학생들에게 집콕 독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용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집콕 독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집콕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어떻게 연계되어 수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독서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 보고자 한다.

2. 집콕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집콕 독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기간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독서활동을 통해 개학 이후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 재택 독서 프로그램이다.

개학 연기가 확정된 후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별 협의회를 열어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지 논의하였다. 이때 집콕 독서 프로그램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추천할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¹ 세 가지 독후 활동을 안내하여 마음에 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하였다.² 수업 시간에 교사의 도움을 얻어 가며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다른 학습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책 읽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집콕 독서 활동을 안내한 이후 2학년 문학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온라인 개학일인 4월 16일에 실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콕 독서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집콕 독서 안내문이 3월 11일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으니,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난 셈이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5월 연휴 직후인 5월 6일에 실시하였으며, 집콕 독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전체 148명 중 140명이,

1 추천 도서 목록은 주로 문학 분야에서 추천하였다. 학생들이 혼자 책을 읽을 때 소설책을 좀 더 편안하게 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타 교과에서도 교과 도서 목록을 제공하였기에 이때 지식 정보 위주의 책을 여러 권 읽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록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2 독후 활동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독서 일지 쓰기 2) 서평 쓰기 3) 브이로그 만들기. 서울시교육청에서 배포한 활동지를 참고하였으며,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했다. 따로 과제 제출 기한은 설정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120명이 응답하였다.

책을 다 읽었느냐는 응답에는 다 읽었다 45.8%(55명), 다 읽지 못했다 54.2%(65명)으로 다 읽지 못한 학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어도 집콕 독서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았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응답이 59.2%(71명), ‘독서 과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응답이 26.7%(32명)이었다. 개별 응답으로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시간이 부족했다’, ‘책을 잘 읽지 않아서 실제로 많이 읽진 못했지만 좋았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독서 습관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억지로 읽었는데 좋은 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등의 긍정적 답변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집콕 독서 목록을 제공한 것이 도움이 되었나’라는 질문에는 81.7%(9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추천 도서 목록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했다.

그러나 집에서 책을 읽는 것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것 중 무엇을 더욱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68.3%(82명)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읽는 것을 택했다. 집에서 과제로 읽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은 29.2%(35명)이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개학 기간 동안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스스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독서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집콕 독서를 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주관식 응답으로 받은 결과, 학생들은 집콕 독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책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도서 목록을 보면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도서에 대한 정보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도서 목록을 활용한 집콕 독서는 일종의 독서 터닝 포인트로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중력이 부족했다, 끝까지 읽기 어려웠다,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등이 집콕 독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주요 답변이었다.

두 번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의 대부분은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추천 도서에 대한 정보와 시간적 여유, 독서 습관이 반겨 줄 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책을 끝까지 읽고 읽지 않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니엘 페냐크가 『소설처럼』에서 주장했듯이 우리에게 책은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것, 책을 제대로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 - 그것이 바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목표이다. 역지로 책을 읽도록 강제해서 학생이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 독서교육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집콕 독서 역시 다르지 않다. 학생들이 책읽기를 편안하게 느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3. 집콕 독서 도서 목록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방안

등교 개학 이후 집콕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연계하기 위해 미리 교과서를 살펴본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에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이 주요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문학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도서 목록을 꾸리고, 각 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먼저 박완서의 『나목』,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한국 장편 소설 목록으로 제시했다. 세 작품 모두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편 소설이라는 특성상 수업 시간에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품들이다. 장편 소설은 자주 끊어 읽으면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쪽 읽어나가는 편이 더 좋은데, 이러한 특징이 재택 학습이라는 상황과 잘 맞아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위 세 작품을 추천하였다.

또한 지금 여기의 한국 문학을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최은영의 『쇼코의 미소』,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이주란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도서 목록에 넣었다. 본교가 여고인 점을 고려해 여학생들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 소설집을 추천으며, 이는 학교마다 상황에 맞게 더욱 적절한 목록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³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문학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와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또한 추천 도서 목록에 추가하였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해당 도서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학과 삶이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책들을 통해 이해하길 바랐다.

문학 작품 대신 인문학 도서를 읽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김이경의 『책 먹는

3 추천 도서 목록으로는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 교육 분과(물꼬방)에서 정리한 2020 추천 도서 목록을 추천한다. 전국의 국어 교사들이 함께 독서 교육을 연구하고, 실제 수업 때 학생들에게 읽힌 책을 추천하고 있기에 활용도가 높다. <http://reading.naramal.or.kr>

법』, 정여울의 『공부할 권리』, 이진순의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김지수의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등을 추천했다. 학생들의 나이가 열여덟인 만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가 자기 인생의 주요 질문으로 떠올랐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학 도서에 비해 인문학 도서를 택한 비율은 전체의 25% 정도로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제1차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었는지와 책에 대한 만족도를 1~5점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책을 끝까지 읽었다고 답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작품은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과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였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중도 포기 비율이 높았지만, 끝까지 다 읽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이다.

올해는 수업일이 줄어들어서 학생들과 여유롭게 수업 중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때 집콕 독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징검다리가 되어 줄 수 있다. 이미 등교 개학 전에 책을 읽어 왔으니 독후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과제형 수행 평가가 금지되어 있어 학생들이 집에서 각자 활동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읽어 온 것을 바탕으로 질문이나 토론 주제를 공유해서 독후 활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⁴

개인별 활동으로는 서평 쓰기와 에세이 쓰기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 책을 끝까지 읽었더라도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사실상 수행 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니 강제성이 낮고, 또한 서평 쓰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으니 더욱 수행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후, 책과 나의 삶을 연계한 글쓰기 수행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서평 혹은 독서에세이 어느 것이라도 좋다.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어 온 학생들을 위해 한두 시간 정도를 독서 시간으로 확보한다면 더욱 좋다. 미리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도 수업을 제대로 듣고 다시 자기 글을 돌아보고 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용하다.

모둠별 활동으로는 같은 책을 읽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책 대화하기와 구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 거리를 각자 써 와서 모둠별로 공유한 후 서로의

4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다양한 사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나의 책 읽기 수업』, 한 학기 한 권 읽기 어떻게 할까? 등을 참고하면 좋다.

질문에 대해 답하고 토론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그 후 교사가 구술 평가 문항을 공개하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책을 바라보면서 다각도로 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나가고, 정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이다. 이때 책을 끝까지 다 읽은 학생은 책을 다 못 읽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독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4.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한 권 읽기를!

코로나 시대에도 독서 교육은 계속된다. 독서교육 활동가인 송승훈 선생님은 학생들과 시집 읽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직접 시집을 읽는 모습을 30분 가량 녹화해, 학생들이 그 영상을 틀어놓고 각자 자기 시집을 읽도록 부탁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은 자기 집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각자의 시집을 읽는 것이다. 시집을 읽는 30분이 끝나면 학생들은 각자 노트를 꺼내 독서 일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 교실이 아닌 환경에서도 독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바야흐로 원격 독서 수업의 시대다.

앞으로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지속적인 질병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될 여지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독서는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 ‘집콕 독서’는 혼자 책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무척 유용하지만, 그 한계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 ‘집콕 독서’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으로 독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문헌

교육부(2017). 국어과 교수·학습 자료. 김영란 외.
 서울시교육청 집콕 ‘프로그램’ - 집콕 독서 안내 <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413&bbsBean.bbsSeq=8>
 다니엘 페냐크(2004). 소설처럼. 문학과지성사.

필자 소개

문학을 좋아해서 국어 교사가 되었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는 교실을 꿈꾼다.